



탐방

롯데알미늄 (주)

# 창립 30주년 맞아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CAN · PET사업 육성, 종합포장회사로 발돋움

## 94년에 CAN · PET 사업진출

롯데알미늄주식회사(대표 손일권)를 찾은 날은 우연히도 한창 제품을 출고중인 지게차며 대형트럭들이 공장 내를 메우고 있어 생생한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접할 수 있었다.

이달로 창립 30주년이 되는 롯데알미늄은 지난 66년 설립되어 68년 지금의 공장에 알미늄 압연공장을 준공, 71년 알루미늄박 및 접착알루미늄박 K.S마크를 획득, 끊임없는 노력으로 84년 '수출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또한 반월에 인쇄가공공장과 압연공장을 연이어 증설하여 마침내 91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해 지난 94년 진천에 CAN, PET병 공장을 인수하고 가동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사업참여에 따라 조직을 사업부제로 전환, 알루미늄사업본부, 가공사업본부, 제관사업본부 체제로 바꾸었다.

93년 생산혁신(IE)대통령상 수상, 94년 제1회 품질경영 100선정 제31회 수출의 날 5천만불 수출의 탑수상에 이어 95년 지금의 손일권



▲롯데알미늄(주) 손일권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경영에 더욱 활기를 띠어 ISO 9002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기획실 엄임용 과장은 "저희 롯데는 94년 개편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기획본부, 관리본부 감사팀과, 알루미늄사업본부, 가공사업본부, 제관사업본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본부별로 관리실, 영업부, 생산부 연구팀으로 나누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간 최첨단 연구기재로 신소재, 신제품 개발을 담당해오던 롯데알미늄 부설 기술연구소가 사업부 특성에 따른 전문특화를 기하기 위해 업무가 각 사업부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이관 되었다. 이에 각 사업본부에서 신제품 개발 등 제품개선의 업무를 하며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통을 바탕으로 한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

롯데의 알루미늄박은 표면이 미려하고 방습성, 경량성, 열전도성, 가공성이 우수하여 산업용 소재, 포장재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광

[표 1] 주요설비 보유현황

사업별	설비
AL 관련 생산설비	압연기 6대, AL가공설비 10대, 단재설비 31대, 기타 24대
연포장생산설비	인쇄기 6대, 가공설비 15대, 단재설비 12대, 기타 11대
음료용기생산설비	CAN 1LINE, PET 2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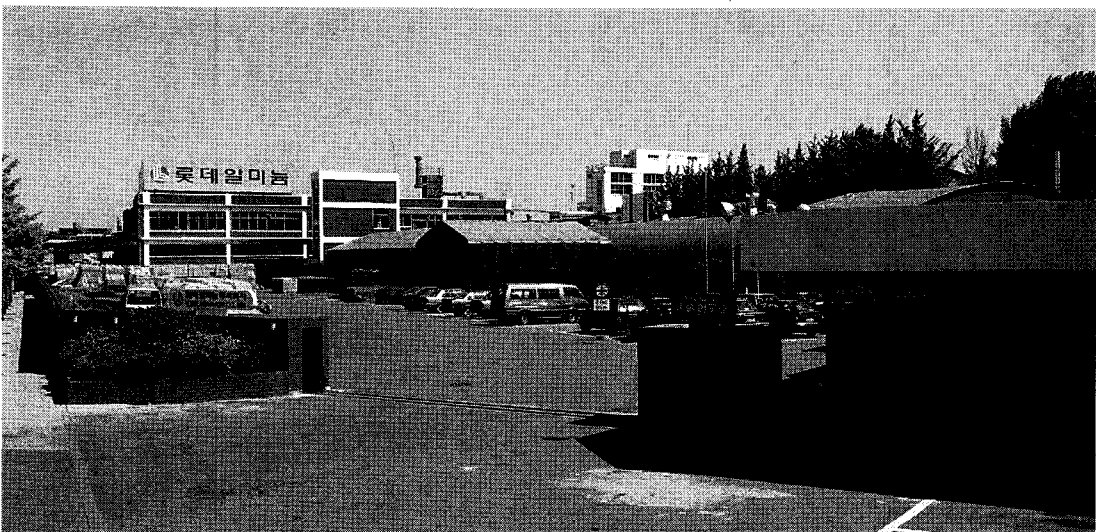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30여년 축적된 알루미늄박 제조기술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무결점의 우수한 알루미늄박 제품을 국내외의 다양한 고객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최저 5 $\mu$ 제품까지 생산하여 고품질 알루미늄박 생산이 가능한 자동형상 제어장치가 장착된 압연기, Pinhole검출기 등의 최첨단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압연기는 고속화, 광폭화가 진행되어 폭 1650mm 수준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내년안으로 압연기 7호기를 확보하게 되면 연산 4만톤 규모의 국내 최대 생산능력이 가능하게 된다.

헤리오 제판기, 그라비아인쇄기, 이연식공압출 수지코팅기, 증착기 등의 설비로 고객이 만족하는 연포장제품을 연산 4억m에 공급하고 있다. 이 제품은 방습성과 가공성이 뛰어나고 제품 보호성이 우수하여 약·식품, 산업포장재로서 적합하다.

94년부터 탄산음료용 2피스 CAN을 360백만관 능력을 보유 생산하고 있는 롯데알미늄은 98년부터 주스용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면 소재의 반입에서부터 제품의 포장까지 전공정에 걸쳐 컴퓨터로 자동제어되는 최신 D.I라인을 갖게 되고 최대 1,600CPM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 1억2천만개의 탄산음료 PET병 용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으며, 97년에 연산 3천5백만개 생산능력의 주스용 PET병용기 설비를 가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PET병 제품은 투명성, 위생성, 가스차단성 등의 장점이 있으며, 특히 연신에 따른 강도증가로 가볍고, 튼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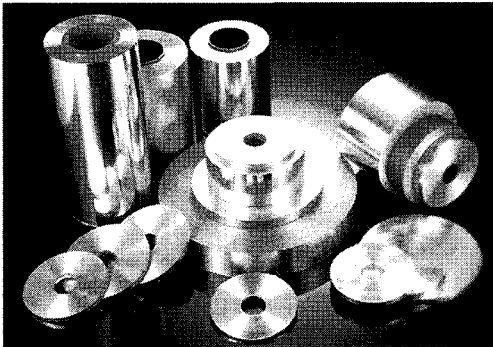
▲금천구에 위치한 본사 전경

며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환경보호형 위생 제품이다.

### 동종업계 최초 ISO인증 획득

현재 서울, 안산, 진천과 부산영업소를 포함하여 89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롯데는 지난해 1,972억원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 2,150억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표준협회 부설 품질인증센터로부터 국내 알루미늄박 연포장재·CAN업계 최초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규격인 ISO9002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인증범위는 알루미늄박, 접착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박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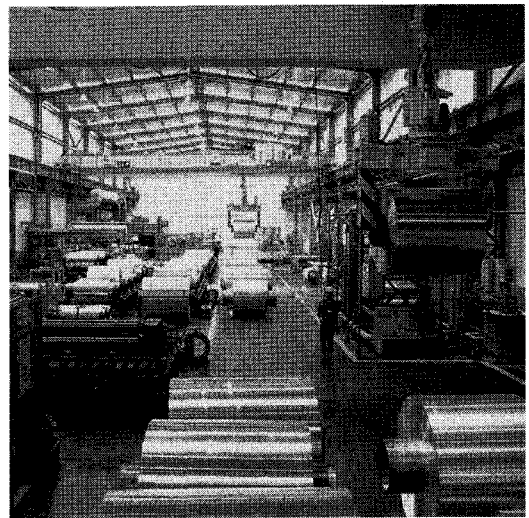
▲연포장 가공제품

알루미늄박, 연포장재, 음료용 캔 및 PET병 전품목의 제조, 판매 및 서비스부문이다.

###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추진

ISO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손일권사장은 “저희 롯데알미늄은 21세기를 제2의 도약기로 삼아 포장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종합포장회사로의 도약과 매출 5억원을 목표로 경영전반에 걸쳐 장단기의 경영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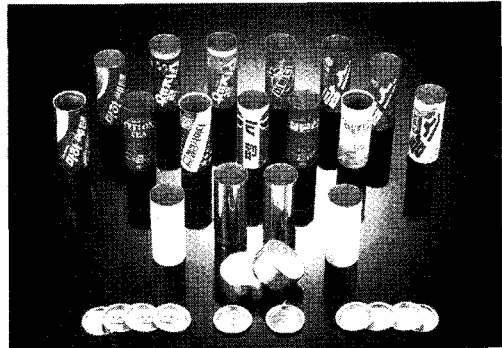
롯데는 이를 위해 첫째, 기존사업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성장위주 전략에서 고부가가치형 비교우위 전략과 국내외에서의 원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경영열화 상품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외현지 생산 공급체제를 유도할 것이다. 둘째, 기존 사업에서의 경쟁관계를 대체 산업으로 확대하여 대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신제품 개발에



▲압연공장 전경



▲내압PET용기



▲롯데알미늄이 생산하고 있는 CAN용기

주력 할 것이고 세제,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진입한 음료용 용기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현재 당사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위상을 2000년에는 모든면에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로 탈바꿈 시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넷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부제도를 더욱 정착화시켜 사업별로의 자생력을 도모하고 책임과 권한의 대폭적인 위양을 통한 자율경영체제를 도모하는 동시에 인력구조의 재편을 통한 인력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국제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롯데의 노력인 동시에 고객과 더불어 전종업원이 다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한다는 롯데의 경영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30년간 알루미늄회사로서 선도적인 위치를 지켜 온 롯데알미늄이 이제 새

로운 사업인 CAN과 PET용기분야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롯데알미늄은 현재 알루미늄박 연간 33,800톤 생산, 연포장재 GR-215백만m, EC-150백만m, 캔 360백만개, PET용기 120백만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포장사업의 다각화로 2천년대 종합포장회사를 꿈꾸며 착실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K]

이선하 기자

(표2)조직도

